

# FTA, 양돈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계기로 삼자



이 병 모 부회장  
대한양돈협회

## 거대 양돈국가 미국과의 경쟁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축산업, 그 중에서도 양돈산업이다. 한·미 FTA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EU와의 FTA도 국내 축산업계에는 상당한 위협의 대상이다. 또한 한·캐나다, 한·중 FTA협상 역시 시작되거나 예고돼 앞친 데 덮친 격의 위기상황이 우려된다.

미국의 거대 축산자본은 국내 양돈산업을 집어 삼키고도 남는 규모다. 미국의 돼지고기산업은 2005년 기준 중국, EU-27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생산국이며 EU-27 다음의 제 2위 수출국으로 높은 생산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양돈강국으로 양돈생산비는 우리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방한다면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미 일본과 같이 우리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농업은 가장 피해가 큰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FTA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피해를 보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19조 지원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시행중이며, 필요하면 자금지원을 얼마든지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양돈산업은 매년평균 1,52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턱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양돈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

## FTA, 양돈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계기로 삼자

다. 양돈협회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연간 1조1천억원의 생산액 감소의 손실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이처럼 정부와 양돈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9천5백억원의 피해액의 괴리는 정부와 양돈농가간의 인식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양돈인의 근심을 더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입돼지고기의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현황을 보면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고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한 지원 필요성

우리 양돈인들은 개방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나눠 먹기 식' 지원도 원치 않는다. 지속가능한 양돈 산업을 위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원할 뿐이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농업법에 의해 전체 관세수입의 30%를 농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등 대부분의 선진 양돈국가에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금제도, 수출보조금 지원제도 등 WTO의 감축보조로 분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농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농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현재 MSY 14~15두의 생산성으로 국제 경쟁은 커녕 국내 양돈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 속에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를 공급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 양돈산업을 견학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양돈인들의 노력만큼이나 정부에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나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을 통해 수입육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FTA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수준에 걸맞는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우리의 핵심과제로 떠올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마련에 있어 국내 양돈산업이 양돈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양돈산업의 경쟁력 지표 재설정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중 투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양돈산업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국내 양돈산업이 개방화 이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성의있는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양돈**